특집시론

다시 평화를 생각하라



그림 · 강병호



김용태
동국대 불교학술원
HK교수

민족자주주의 입각한 비폭력 '3.1운동'
감복했던 타고르 '동방의 등불' 노래해
운동 계기로 임정 수립… 현재로 이어져
잊혀진 불교 인물 연구 · 발굴 노력해야

2019년은 3.1운동이 일어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를 맞이하여 정부, 시민단체, 학계, 종교계 등 다양한 차원에서 기념식과 행사, 학술회의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3.1운동은 천도교, 기독교, 불교계 등 종교계 인사들이 주도하여 일제의 식민통치에 맞서 대한의 독립을 외친 거국적 항일운동이다.

당시의 기록과 통계에 의하면 전국에서 인구의 10%에 해당하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국적으로 참여하였고 7,500명이나 되는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한다. 3.1운동 하면 흔히 유관순 열사가 먼저 떠오르지만 민족대표 33인에 들어간 한용운, 백용성을 필두로 서울과 지방에서 수많은 스님들이 거사에 참여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3.1운동 이후 민족의식에 눈을 뜬 청년승려들은 일제의 사찰령을 비판하고 자주적 종단 건설을 위한 투쟁을 이어나갔다.

비폭력투쟁으로 전개된 3.1운동은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제국주의의 침탈과 강권에 맞서 분연히 들고일어난 민족자주운동이었고 국제적으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두 달 뒤인 5월 4일에 중국 베이징에서 주로 학생들이 항일과 반제국주의를 부르짖으며 일으킨 5.4운동도 3.1운동의 중국식 버전이었다. 또 인도의 시성(詩聖) 타고르가 10년이 지난 1929년에 일본에 와서 한국을 '동방의 등불'이라고 노래한 것도 3.1운동의 비폭력 평화주의에 깊은 감명을 받았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수많은 민중들이 들고 일어난 3.1운동에 화들짝 놀란 일제 당국이 1920년대부터 경찰과 헌병이 주도한 무단통치를 대신해 문화통치를 하겠다고 선언했을 정도로 그 여파는 작지 않았다.

무엇보다 3.1운동을 계기로 국내외에서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민족해방운동이 더욱 활기차게 펼쳐졌다. 바로 한 달 후인 4월에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은 3.1운동이 한민족에게 얼마나 큰 감동과 자각으로 다가왔는지를 잘 보여준다. 임시정부는 이후 항일운동의 거점이자 정신적 구심점이 되었고 현재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도 임시정부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군주제 국가인 대한제국에서 민(民)이 주인이 되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으로의 전환과 그 상징성은 독립된 민족국가를 이루려는 모든 이들에게 벅찬 기대와 희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이처럼 한국사에서 3.1운동이 갖는 역사적 의의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었다.

현재의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던 요릿집 태화관에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불교계를 대표해 참여한 이는 한용운과 백용성이었다.

한용운은 천도교의 최린이 제의하고 최남선이 초안을 만든 독립선언서 작성에도 관여하였고, 전날인 2월 28일 밤 자신의 집에서 신상완, 김상헌, 정병헌, 백성욱, 김법린 등 중앙학림 학생들에게 거사 소식을 알리고 독립선언서 수천부의 배포를 당부하였다. 중앙학림은 1906년에 세워진 근대적 불교교육기관인 명진학교의 뒤를 이은 학교로 중앙학림 학생들은 3월 1일 종로의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나눠주는 데 발 벗고 나섰다.

이들은 탑골공원에서 나와서 종로경찰서를 지나 남대문 쪽으로 향하다가 정동을 거쳐 서대문 쪽으로 가면서 독립을 외쳤다고 한다. 그리고 이들의 연락으로 범어사, 통도사, 해인사 등 영남의 거찰을 중심으로 각지의 사찰에서 만세시위가 이어졌다.

또한 신상완, 백성욱, 김법린 등은 4월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중국으로 건너가기도 했다.

1919년 11월에는 상해에서 '대한승려연합회 선언서'가 발표되었다. 이 선언서는 백초월, 신상완 등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데 오성월, 김구하, 김경산, 김상호 등 12명이 7천여 승려들을 대표하여 발의하였다. 여기에는 일제의 식민지배에 항거해 조국이 독립할 때까지 혈전으로 싸울 것을 결의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중앙학림의 학생대표와 유심회 회장을 지낸 신상완은 의용승군제를 추진하기도 했지만 일제에 검거되면서 무산되고 말았다.

이밖에도 승려 출신 독립운동가들이 만주의 군관학교나 국외의 여러 항일단체에 가담하였고 또 국내 사찰에서 군자금을 모집해 보내는 등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활동이 계속되었다.

3.1운동으로 촉발된 민족적 각성의 분위기는 1920년대에 불교계 혁신운동에 불을 지폈다. 1920년에 조선불교청년회, 1921년에 조선불교유신회가 조직되었고 이에 소속된 청년승려들은 사찰령의 철폐를 요구하고 일본 불교에서 연유한 본말사 체제를 비판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은 계속 이어져 1929년 1월에 열린 전국승려대회에서는 조선불교의 종헌과 종회를 만들고 자율적 교정을 추진하려 하였다. 또한 1931년에는 조선불교청년총동맹에서 종헌의 실행을 촉구했다.

한편 1921년에는 백용성, 송만공 등에 의해 선학원이 설립되어 선종 전통의 계승과 중흥을 촉구하였고, 그 연장선상에서 1935년에는 선학원 측에서 주최한 전국 수좌대회가 열려 종규를 제정하고 조선불교선종을 종명으로 선포하기도 하였다.

3.1운동 이후 불교계에서는 자주와 혁신을 내세운 여러 목소리들이 분출되었다. 이영재는 〈조선불교혁신론〉에서 민주공화정 이념과 권력분립을 기조로 한 혁신교단의 수립을 주장했고, 백용성은 경전 번역의 현대화와 식산흥업, 대각교 운동을 벌이는 한편 선과 계율 전통의 수호를 꾀했다.

철저한 민족주의 불교운동가로 전향한 한용운도 사찰령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산간에서 가두로, 승려에서 대중으로'라는 표어에 집약된 불교의 사회화, 대중화를 추진하였다. 비록 식민지 현실의 장벽에 가로막혀 불교의 자율성 회복은 주권을 되찾은 해방 이후까지 기다려야 했지만, 3.1운동으로 불교계가 민족의식에 눈을 뜨고 겨레를 이끄는 횃불을 높이 들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해방 이후 1962년 한용운과 백용성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서훈이 처음 이루어진 이래 2019년 현재 독립유공자로 선정된 불교계 인사는 104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전체 독립유공자 15,180명 가운데 불교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다. 이는 불교가 정치와 무관하며 세속을 떠난 출세간 승단이 가질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일 수도 있다. 아니면 식민지 사찰령 체제 하에서도 사찰을 운영하고 불교의 명맥을 이어가야 했기에 보다 많은 스님들이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마음속으로 조국의 해방을 꿈꾸고 간접적으로나마 독립운동을 성원한 이들이 많이 있었다. 따라서 역사의 기억에서 잊혀져간 이들과 관련된 사적을 조사, 발굴하고 불교계 독립운동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은 우리 미래의 발걸음과 직결되어 있다. 3.1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그 의미를 되새길 때 불교는 민족의 화해와 소통, 남북의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장도에 다시금 혜명을 비출 수 있다.

社說

3.1운동 100주년에 부쳐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1919년 3월 1일 오후 1시에 발표된 기미독립선언서 첫 머리다.

당시 서울 종로 요릿집 태화관에 모인 민족대표 33인은 독립선언과 공약삼장을 낭독하고 만세를 외치던 중 들이닥친 왜경에 의해 체포됐다. 선언 발표 직후 터져나온 "대한독립만세"는 전국 팔도로 들불처럼 퍼져 나갔다. 3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만세운동은 1500여 집회에 200만여 명이 참석했다. 이는 당시 인구에 10%가 참여한 것으로 약 7000여 명이 목숨을 잃기도 했다.

3.1운동의 여파는 실로 대단했다. 운동 한 달만에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됐고, 국내외 항일운동으로 퍼져 나갔다. 이들의 정신은 대한민국 정부로 계승됐다.

우리가 3.1운동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3.1운동이 '비폭력 평화주의'라는 큰 가치를 지녔기 때문이다. 독립선언서는 자주독립의 주인공은 나 자신이며 이는 곧 세계인의 자주독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100년이 지난 2019년 3월 1일 불교계는 선각자들의 기미독립선언을 기념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오늘날의 불교계가 발표한 선언이 강조하는 것도 100년 전 3.1운동의 평화주의였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선언 실천강령에서 밝혔듯이 중도와 화쟁을 바탕으로 극단을 배격하고 자비를 증장해 나가야 한다.

또한 분열한 한반도에 평화가 올 수 있는 방안을 온 겨레가 합심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3.1운동 정신의 시대적 발현이다.

템플스테이, 탈북민 포교 마중물되길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2017년부터 주요사업으로 추진해온 '나눔 템플스테이'가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 제공될 전망이다. 나눔 템플스테이는 지난해에만 1만여 명이 참여하면서 대학생을 비롯해 소방대원, 도박중독자,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에 심신의 안정을 지원했다. 향후 나눔 템플스테이의 지원 대상이 북한이탈주민에게까지 확대된다면, 이는 그동안 타종교에 비해 관심이 부족했던 불교계의 북한이탈주민 포교에도 자극이 될 것이다.

(사)북한인권정보센터 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입국과정 중 조사시설과 하나원에서 종교활동을 시작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60%가 넘는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 중 불자는 10%에 불과하다. 무종교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 포교현장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가장 큰 이유로 '불교계의 무관심'을 꼽는다. 실제 하나원에서 사회적응하기 전 1~3개월간 머무는 조사시설에서 포교하는 스님은 단 한 명도 없다. 이웃종교에서 목사와 신부, 수녀 등이 찾아와 전도하는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그나마 여성 북한이탈주민이 머무는 안양 하나원에는 지역 스님이 도움을 주고 있지만 남성 북한이탈주민들이 거주하는 화천 제2하나원에는 스님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렇게 방치된 채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변한 건 없었다.

이 때문에 템플스테이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안식을 제공하고, 관련 활동이 알려질수록 사부대중의 관심은 늘어날 것이다. 부디 나눔 템플스테이 확대가 불교계의 북한이탈주민 포교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 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세로 32cm×높이(뒷면) 8cm]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